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 (1880-1900)

이상규

(고신대학. 부교수. 교회사)

목

1. 서론—부산지방에서의 교회
2. 초기 기독교 선교를 위한 시도(1883-1891)
 - 1)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성경반포사업
 - 2) 월풀의 조선선교를 위한 호소
 - 3) 개일과 하디의 부산에서의 선교
 - 4) 데이비스의 부산선교를 위한 시도
 3. 미국 장로교의 부산지방선교
 4. 호주 장로교의 부산지방선교
 5. 부산지방에서의 첫결실, 교회의 설립
 6. 글을 맺으며—선교지역분활과 치리회의 조직.

1. 서론—부산지방에서의 교회

옛말에 ‘물을 마실때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飲水思源)는 말이 있다. 부산지방에 복음이 전래된 지 100여년이 지난 이제 부산지방에서의 기독교 전래와 복음역사의 기원과 근원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부산지방에서 오늘 날과 같은 복음운동과 교회성장, 그리고 여러 교회운동이 있기까지 씨뿌리는 수고를 감내하였던 초기 복음운동의 연원을 고찰하는 일은 의미있고도 유익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부산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전래와 선교를 위한 노력 그리고 교회설립의 과정을 1883년부터 1900년이전까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서 기독교라고 할때 그것은 개신교회(Protestant churches)를 의미하지만 주로 장로교를 중심으로(타교파는 1900년대 이후 부산지방에 전파되었다) 기술하였고 또 부산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지만 역사적 관련성 때문에 경상남도 지방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다. 부산지방에서 기독교회의 기원에 대한 이 글이 이 고장 교회사 연구에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지방에서의 교회’라고 할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먼저 이 질문에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 복음은 지리적 확장의 과정을 밟아왔다. 즉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설립의 과정은 팔레스틴과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지로 서행화(西行化)의 과정을 밟아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북미대륙으로 전파되었고 다시 아시아로, 한국으로 전래되었다. 이 복음화의 과정, 곧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세계사적 과정 속에서 한국에 까지 전파되었고 그리고는 이곳 부산에까지 복음이 전래되고 교회가 설립 된 것이다. 그래서 ‘부산지방에서의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다른 지방에서의 교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독자적이고 특수한 교회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동일한 교회요,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교회일 따름이다. 예컨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부산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없는 새로운 교회가 창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100년 전에 부산에도 설립되었을 따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년 전에 부산에서도 교회를 설립하는 일을 계속하셨을 뿐이다. 부산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것은 이미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합류된 것이며 하나님의 집의 동일한 권속이 된 것을 의미한다.¹⁾

교회에 관해 가장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있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리속이라”(엡2:19)고 했다. 에베소는 예루살렘이나 앤디옥 등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들 보다 후기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리속이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다른 조직체의 백성(회원)이 된 것이 아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합류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산의 교회는 어떤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류했을 따름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기초만 갖고 있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엡2:20) 그러므로 ‘부산의 교회’ 혹은 ‘부산지방에서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주적 교회, 곧 이미 이 세상에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부산지방에서의 기독교회의 기원과 역사를 추정하는 작업은 부산지방에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추적하는 거룩한 소명

1) J. Kamphuis, *Signalen uit de Kerkgeschiedenis*, Groningen, 1975, 제1장 참고.

인 것이다.

부산은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특이한 지세(地勢)와 온화한 기후를 갖춘 천혜(天惠)의 항구도시로써 지형으로 보면 대충적층(大沖積層)을 중심평야로 하여 서북쪽을 달리는 해발 642미터의 백양산을 최고봉으로 구덕산·상계봉을 연결하는 산령을 넘어 낙동강 하류와 양산(梁山), 물금(勿禁)의 계곡 평지와 병행하고 있다. 또 부산중심 계곡의 동쪽 역시 장산(長山, 634m)을 비롯한 개좌산, 활마산 등 연봉이 남쪽으로 달리고 첨첩이 연이은 산령을 넘어 동해안에 이른다. 이들 남북 방향으로 달리는 산봉들은 낙동강 하구의 해안에서 반도로 뻗어 감천, 다대포, 부산포, 용당포, 수영포 등 5개 항만을 이루고 산령(山嶺)과 연안의 협소한 해안평야에 산을 등지고 바다를 앞에 둔(背山臨海) 거주지를 이루고 있는 도시가 부산이다. 이곳이 바로 천주교와 한국간의 최초의 접촉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을 통한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의 입국이래 기독교 복음과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진 도시이며,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던 알렌(H. N. Allen 安連, 1858~1932)을 비롯한 미국등 구미의 선교사들이 입항했던 한국의 첫 항구였다. 적어도 1876년 개항이래 부산은 조선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였고 한국의 관문이었으며, 일본과 인접한 도시였으므로 한국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는 부산을 경유했던 것이다. 그리고 부산은 일본 뿐만 아니라 홍콩과 중국대륙을 잇는 대표적인 교통의 요충지였으므로 부산은 외국, 외국인과의 교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던 도시였다. 이와같은 지리적 위치때문에 부산은 이북의 의주와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이 이루어진 도시였다.

1800년대 말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의 접촉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째로는 중국대륙, 만주를 거쳐 의주(義州) 등 변방으로 전래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홍콩, 일본을 거쳐 부산항을 통한 접촉이었다. 1880년대 미국과 호주 등 선교사가 정식 입국하기 이전까지는 주로 만주지방을 거쳐 의주 등 이북지방을 통한 기독교의 전래이며 1880년대 이후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일본(시모노세키)을 거쳐 부산으로 입항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 선교사였던 언더우드(H. G. Underwood, 1859~1916)나 아펜젤라(H. G. Appenzeller, 1858~1902), 베어드(W. M. Baird, 1862~1931) 등 선교사들과 호주의 데이비스, 맥카이, 아담슨 선교사 등이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부산은 비록 교세에 있어서는 관서지방이나 서울지방에 못미치는 것이었으나 복음과의 접촉은 이들 지역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일제 치하에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사참배 반대를 결의한 곳으로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중심지였고 해방후에는 한국교회 재건운동, 특히 영적 개신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했다. 6. 25동란 중에는 한국장로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한국교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거듭되는 역사의 질곡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대망하며 회개운동이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부산지방에서의 기독교의 전래와 복음운동에 관한 고찰은 한국 교회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고도 진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고는 결코 완벽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다. 아직 충분한 자료가 섭렵되지 못했고 많은 점에서 제한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고장 교회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기존의 기록들 속에 다소 오류가 있으므로 본고가 부산지방 교회사 연구의 작은 안내적 역할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앞으로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발전적인 첨삭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2. 초기 기독교 선교를 위한 시도(1883-1891)

부산지방에서의 기독교 복음운동의 기원이나 기독교와의 최초의 접촉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호주 장로교와 미국 북장로교가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하기 이전에 이미 몇 가지 유형의 선교를 위한 시도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 시도는 중국과 일본에 주제한 외국 선교부의 노력으로써 1880년대 초부터 간헐적으로 시도되었다. 비록 이들의 노력이 부산지방에서의 기독교의 전파나 복음화에 구체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했으나 이 지방에서의 선교를 위한 최초의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성경반포사업

부산지방에 복음을 전하려는 최초의 노력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가 시도한 성경반포사업이었다. 이 성서공회의 부산 복음화의 꿈은 알레이 입국하기 1년전인 1883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압록강 연안과 황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상륜(徐相峯)의 매서(買書) 전도와 때를 같이 한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NBSS,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는 1882년 심양(瀋陽)의 문광서원 간행의 로스역(Ross Version)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나 복음전서를 각각 3000권씩 출판했는데 (그러나 1886년 로스역 예수성교 전서는 영국 성서공회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중 3분의 1을 일본 요꼬하마주재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인 톰슨

(J. Austin Thomson)에게 보내어 조선에 반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²⁾ 그래서 일본주재 동 성서공회는 1883년 일본인 권서인(勸書人) 나가사끼(長坂)를 부산에 파견하여 성경반포사업을 했는데 이 일은 그가 별세할 때인 1886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반포사업에 대한 극히 부분적인 기록밖에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산지방 복음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단지 이 기간동안 2000권의 복음서를 반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³⁾ 이 당시 한국에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외에도 미국 성서공회와 영국 성서공회 등 외국의 성서공회가 일하고 있었는데 미국 성서공회는 1884년 이수정(李樹廷)이 번역한 국한문 번역을 출판하였고, 동시에 그의 국문판 마가복음서도 출판하였다.

영국 성서공회는 이보다 앞서 존 로스(John Ross)의 한국어 선생이었던 서상륜을 1883년 권서인으로 임명하여 북한지역 전역에 성격반포사업을 벌였다. 이 일을 통해 그는 100명이 넘는 신자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 로스를 초청하였으나 로스가 응할 수 없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1884년에는 톰슨 총무가 조선에 성경보급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부산에 온 일이 있는데 이 때도 두 사람의 일본인을 데리고 왔다. 즉 감리교인 스가노(菅野)부처와 미우라(三浦)가 그들이다. 미우라는 곧 사면하였고 스가노는 부산, 동래 그리고 대구지역에서 로스판 성경 매서에 친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이 당시 언더우드는 이 사역을 더 계속해 주도록 간청하였지만 이 사업은 더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1886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일본주재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부산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던 최초의 기독교 기관이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2) 월푸의 조선선교를 위한 호소

한국에 있어서 개신교 선교사의 정식 입국은 1884년 9월 20일 알렌(Horace Newton Allen, 安連, 1858~1932)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부산지방에서는 이보다 1년 후인 1885년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관례이다. 이 해에 중국 푸조(Foo Chow, 福州)에서 선교하던 영국 성공회 계통의 영국교회 선교회(C.M.S. Church Missionary Society) 소속 월푸(Archdeac-

2)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for 1887*, p. 39참고, 白樂濬, 韓國新教史, 1832~1910, 延世大學校出版部, 1973, p. 100.

3) 한국교회 100주년 준비위원회 사료분과위원회편, 大韓 예수敎 長老會 100年史,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4년, p. 28.

4) 앞의 책, p. 28.

on John.R.Wolfe) 선교사가 두 사람의 중국인 전도자(two chinese catechists)와 함께 부산에 왔다.⁵⁾ 이 때가 1885년 11월 말경이었다.⁶⁾ 이보다 앞서 월푸는 일본 나가사끼(長崎)에서 알렌과 함께 일시 부산에 입항한 적이 있다. 즉 알렌은 1884년 9월 미국 영사관의 공의의 자격으로 부임하여 일하던 중 상해에 있는 가족을 데리러 잠시 상해에 들렀다가 귀로에 나가사끼에서 월푸와 함께 부산에 왔던 것이다.

영국교회 선교회는 1799년 창립된 복음적인 선교단체로써 특히 인도, 중국 등지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는데, 월푸는 54년간 중국에서 일한 특출한 선교사였다. 그는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 건강이 좋지 못했고, 특히 청불전쟁으로 야기된 불안한 정세 하에서 의사로부터 일정기간 요양을 권고받고 일본을 거쳐 조선에 오게 된 것이다. 선교사로서의 그의 조선방문은 단지 요양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또 그가 조선에 대한 선교의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가 조선에 와서 얼마간 체류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가 푸초로 돌아간 이후 그 해에 '남지나 선교회'(The South China Mission) 연례 지방대회에서 조선방문의 자유를 보고하면서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⁷⁾

그 결과 한 사람의 중국인 목사와 세 사람의 평신도가 조선선교를 자원하였다. 월푸는 이들의 선교사역을 위해 본국 선교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얻지 못하였고, 결국 호주 CMS로부터 부분적인 지원을 받아 1885년 11월 말경 두 사람의 중국인 전도자만을 데리고 부산에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선교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고 아무런 기록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때는 아직 기독교 선교가 금지되어 있었고 활동도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활동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886년에 부산을 방문했던 마틴목사(Rev. J. Martin)의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50여 명의 무리들을 발견했다고 한다.⁸⁾

1887년 가을에는 일본주재 비첼스테드(Bickersteth)주교와 북 중국주재 스코트(Scott)주교가 부산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이 때 여러 곳에서 전도할

5) C.F. Pascoe, *Two hundred years of the S.P.G.; an historical account of 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 1701~1900*, London, 1901, p. 713.

6) 이영현, 韓國基督教史, 컨콜디아사, 1973, p. 83.

7) J.R.Wolfe, "A Visit to Korea", *The Church Missionary Intelligencer and Record*, Vol.10.(N.S.), for June, 1885, pp. 418~430.

8) E. Stock, *History of the C.M.S.*, Vol. 5.(London:C.M.S. 1899), p. 565.
Edith A. Kerr and George Anderson,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89~1941*, Australian Presbyterian Board of Missions, 1970, p. 6. 참고.

수 있었으나 이 때에도 그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이들은 켄터버리 대주교에게 한국선교의 진방성을 말하고 선교사 파송을 호소하였던바 후일 한국에서의 성공회 선교운동의 한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⁹⁾

정리해서 말하면 월푸의 노력은 두 가지 점에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여했는데 첫째로는 그의 노력에 의해 영국 교회선교부(The Mission of Church of England), 즉 외지 복음선교회(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Gospel in foreign parts)가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한 일이다. 즉 1890년 콜페(C. J. Corfe, 高堯翰)감독을 조선 선교사로 파송하였다.¹⁰⁾ 영국을 떠나기 전에 앞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선교사 주교(Missionary Bishop)로 서품 받았던 콜페는 다른 여섯 사람의 성직자와 두 사람의 의사와 함께 입국하여 선교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에서의 성공회 선교의 시작이었다. 두번째로 월푸의 기여는 부산지방에서의 호주 장로교선교의 길을 안내한 일이다.

즉 월푸는 조선을 일시 방문한 이후 호주에 한국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였다. 월푸의 편지는 멜보른의 코필드(Caulfield)에 위치한 성 메리교회(St. Mary Church)의 메칼트니(H. B. Macartney) 목사가 편집, 발행하는 국내·국외 선교(*The Missionary at home and abroad*)에 발표되었고 이 호소는 후론하게 될 데이비스로 하여금 한국으로 항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어떤 기록에는 월푸 주교가 직접 멜보른을 방문하고 한국선교를 호소했다고 기록했으나 이점은 분명치 않다.

어떻든 부산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였던 월푸는 부산지방 복음화를 위한 작은 기초를 마련하였고 그는 비록 성공회에 속했으나 호주 장로교의 부산지방선교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었다.

(3) 게일과 하디의 부산에서의 선교

부산에서 선교했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카나다 선교사인 게일(James Scarta Gale, 奇一, 1863-1937)이었다.

그는 토론토 대학(Toronto Univ.)을 졸업하고 동대학 학생 기독교 청년회(YMCA)의 파송으로 1888년 3월까지 3개월간 서울에 체류하다가 내지 담사를 겸한 순회전도를 시작하였다. 게일은 처음 황해도 감영(監營)이 있던 해주에 정착하려 하였으나¹¹⁾ 선교 사무실 구입이 여의치 못해 이틀후 송천(松川)으로 이거하여 3개월간 체류하였다.

9) C.F.Pascoe, *op. cit.*, p. 713.

10) 백낙준, 앞의 책, p. 90.

11) J.S.Gale, *Korean Sketches*, Edinburgh, 1908, p. 17.

그후 다시 서울을 거쳐 1889년 7월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 때로부터 그는 1891년 봄까지, 곧 토론토 대학 기독교 청년회와 관계를 끊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로 이적할 때까지 약 1년 반동안 부산에서 일했다. 그 후 그는 장로교 본부 선교사로 일하다가 1902년 혜론 박사의 미망인과 결혼하고 그해부터 원산지방에서 선교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의 역사와 언어, 풍습에 관한 주목할 만한 저서를 남겼던 학자이기도 했는데 1894년에 쓴 한국어 문법 형태(*Korean Grammatical Forms*)와 1909년의 쓴 전환기의 한국(*Korean in Transition*)은 특히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영사전을 처음으로 편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번역 위원회(The Committee of Bible Translators)의 위원으로 봉사하였고, 후일에는 한국교인의 협조를 얻어 사역(私譯)신약전서를 완성, 발행하기도 했다.¹²⁾

게일이 부산에서 일했던 기간 중의 선교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부산 체류기간이 짧았고 특히 부산에서 체류 기간 중에는 한국어 공부에 전념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 단지 부산에 주제한 장로교의 첫 선교사로써 이 지역 선교를 위한 팀색과 연구의 기간을 보면 것으로 보인다.

또한가지 언급할 것은 하디의사(Dr. Robert A. Hardie)부처의 내한과 부산지방에서의 의료선교계획이었다. 1865년 6월 11일 카나다 온타리오주 할디만(Haldiman)에서 출생한 그는 1890년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9월 30일 토론토대학교 의과대학 YMCA의 파송을 받아 한국 선교사로 내한하였다.¹³⁾

그는 이 때로부터 1892년 11월 부산을 떠나 원산으로 가기까지¹⁴⁾ 약 2년 동안 부산에 체류하며 게일과 함께 선교사역에 종사하였다. 그가 처음 내한 할 때 토론토대학 YMCA는 “적어도 향후 8년간 선교사역을 후원하기로”로 결의하였으나 제정직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의료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했고 향만지역 의사로서 그리고 선박 검역관으로서 봉사하였다. 특히 게일이 1891년 봄 부산을 떠나게 되자 하디선교사는 한때 호주 선교사인 맥카이 목사와의 접촉을 통해 호주 장로교선교사로 이적을 고려한 일도 있을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결국 하디는 1892년 11월 부산을 떠

12) J.F.Genso, “A New Translation of the Bible”, *The Korea Mission Field*, Vol. 22 No. 4(April, 1926), pp. 81f

13) Young Sik Yoo, *Earlier Canadian Missionaries in Korea*, The society for Korean and relative studies, 1987, p. 58.

14) Ibid., p. 59.

나 원산으로 갔고 카나다출신 침례교 독립선교사였던 펜윅(Malcolm C. Fenwick)집의 방 한칸을 빌려 간이 치료소로 사용하며 의료선교사로 봉사하였다. 그후 1989년에는 미국 남감리회로 이적하였다.

게일과 마찬가지로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로서 하디는 부산에 2년간 체류했지만 그의 선교활동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하디 역시 그의 첫 임지였던 부산에서 후일의 선교를 위해 언어공부와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훈련의 기간을 보냈으므로 구체적인 선교의 결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데이비스의 부산 선교를 위한 시도

호주장로교가 파송한 최초의 한국선교사이자 부산·경남지방 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첫 선교사는 데이비스(Rev. Joseph Henry Davies, 1856~1890)였다.¹⁵⁾

호주장로교회는 미국북장로교회의 첫 한국선교사였던 알렌(Dr. H. N. Allen)이 입국한 지 5년후인 1889년 10월 조셉 헨리 데이비스와 그의 누이 메리 데이비스(Miss Mary Davies)를 한국에 파송하였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데이비스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중국 푸초(Foo Chow, 福州)지방에서 선교하던 영국교회 선교회(C. M.S.)소속 선교사 윌풀(John R. Wolfe)의 한국선교에 대한 호소를 듣고 데이비스남매는 한국선교를 자원하였다.

지금은 한국이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 한국은 극동의 고집스런 나라였고 외국과의 모든 활동이 단절된, 그리피스(Griffis)의 표현대

15) 1856년 뉴질랜드 왕가라이(Wangarai)에서 출생한 데이비스는 2가 4살때인 1860년 호주로 이주하였고 그의 나이 20세때인 1876년 호주 CMS소속으로 인도선교사로 파송되어 21개월간 봉사한 일이 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인도로 가기를 원했으나 한국선교의 진박성에 대한 월풀의 호소를 듣고 한국으로 가기로 작정하였고 성공회를 떠나 장로교회로 이적하였다. 이때 멜보른의 투락(Toorak)장로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이윙(John F. Ewing)목사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이윙은 데이비스를 장로교회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888년 11월 22일 빅토리아주 장로교총회에 전(前)일본선교사였던 딕슨(W.G.Dixon)과 맥클라렌(S.G.McLaren)을 포함하여 17명의 지도적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데이비스를 한국선교사로 인준하도록 요청하였고 허락을 얻게 하였다. 데이비스는 에딘버러(Edinburgh)의 New College에 가서 신학교육을 마치고 귀국하였고 1889년 8월에는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1888년 창립된 청년연합회(Young Men's Sabbath Morning Fellowship Union, Y.M.F.U.)는 데이비스의 선교사역을 지원키로 결의하므로써 데이비스는 청년연합회의 제정지원하에 한국선교사로 임명되었다. 이때 데이비스의 누이 메리(Mary)도 멜보론의 뜻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기독교연합회'(Suburban Christian Union)의 지원하게 함께 한국으로 파송되었다.

로 은둔국(Hermit Kingdom)이었다.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쇄국 정책이 폐기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오랜 전통의 굴레 속에서 반(反)외세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특히 선교의 자유가 공적으로 인정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빅토리아 장로교회는 한국선교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데이비스를 선교사로 인준하였지만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한국선교부를 설치할 계획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연합회는 한국선교를 자원한 데이비스를 지원키로 결의 하였던바, 이것은 매우 뜻깊은 용단이었다. 한국선교사로 부름받은 데 이비스는 더 이상 저체할 이유가 없었다.¹⁶⁾ 1889년 8월 21일 데이비스남매는 멜보론을 떠나 한국으로 항한 여행을 시작하였고 그해 10월 2일 이른아침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부산을 둘러본 후 다시 출항하여 4일 오전 11시에 제물포(인천)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 오후 늦게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때로부터 서울에서 보낸 5개월동안 데이비스는 한국여 공부에 전력하였고, 언더우드등 북장로교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였다. 이미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료 선교사들은 물론 서상륜등 한국인 매서인(賣書人)전도사와 함께 과천, 수원, 용인등 서울을 중심한 인접지역을 답사하고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즉 데이비스는 그가 입국한 이후 서울지역에는 이미 선교를 계시한 선교부외에 또다른 선교사들이 입국할 전망이었으므로 바울의 선교 원리를 따라 일단 선교사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가서 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한때 군산지방으로 가서 선교하는 일을 고려한 일도 있으나, 일단 남부지방 곧 부산으로 가기로 작성하였다. 그것은 부산이 한국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며 일본과 인접해 있어 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도착한 그 다음해인 1890년 3월 14일 누이동생은 서울에 남겨둔 채 어학선생과 하인, 그리고 매서할 문서와 약간의 약품 등을 준비하여 서울을 떠났다. 3월이라고 하지만 추위는 계속되었고 그 해 따라 잦은 비가 겹쳐 먼길을 도보로 여행하는 일은 안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서울을 떠난 그는 수원 등 경기도 지방과 공주 등 충청도 지방을 거쳐 경상도 지방까지 300마일에 이르는 약 20일 간의 답사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매우 절망적인 상태였다. 그는 무리한 도보 여행으로 인해 천연두에 감염되었고 곧 폐렴이 겹쳐 마지막 5일 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데이비스가 부산에 도착한 날은 1890년 4월 4일 금요일이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당시 부산에는 제일(J. S. Gale)선교사가 있었는데 데이비스가 위독하다는 전갈

16) 본항의 데이비스의 관한 모든 정보는 필자의 출고, "J.H.Davies-The first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ary in Korea" 고려신학보 20집(1991. 3), pp. 22~38에 기초하였음.

을 받고 급히 달려와 자기집으로 옮겼고 또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인 의사가 와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갔으나 다음날인 4월 5일 오후 1시경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가 한국에 온지 6개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한국땅을 밟은지 꼭 1831년째였다. 그가 부산지방선교의 꿈을 안고 부산으로 내려왔으나 그 꿈은 그 자신의 생애 속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호주 장로교회의 한국선교, 아니 부산경남지역 선교를 가능케했던 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게일은 데이비스의 시신을 영선동 뒷산에 매장했던 바, 이곳은 후일 호주장로교의 부산선교를 위한 약속의 땅이 된 셈이다.

데이비스의 희생적인 삶과 죽음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한국(부산) 선교를 가능케했다. 데이비스를 파송했던 청년연합회는 1890년 7월 23일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한국에 선교사를 다시 파송,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또 1890년 창립된 장로교 여선교회연합회(P.W.M.U. Presbyterian Women's Missionary union)도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데이비스의 죽음은 부산경남지역 선교를 위한 값진 희생이었다.

3. 미국 북장로교의 부산지방 선교

호주의 첫 선교사였던 데이비스가 부산에서 세상을 떠난 후 호주 장로교 선교사 제2진이 부산에 오기 전 부산에 찾아온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윌리엄 베어드(Rev. William M. Baird, 1862~1931)부부였다.

부산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중요한 항구이고 1876년 개항이래 조선의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가 되었다. 특히 부산은 일본과 인접해 있고 홍콩과 중국대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뿐만 아니라 1890년 당시 부산 경남지방에는 15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으므로 북장로교 선교부는 서울 다음으로 부산·경남지방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부는 부산에 선교거점(Mission Station)을 열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미 북장로교 선교부는 1884년 알렌을 조선에 파송할 때부터 부산지방 선교를 고려한 일이 있다. 백낙준박사에 의하면 당시 알렌은 부산에 적절한 거처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¹⁷⁾ 결국 서울에 상주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즉 부산에는 약 5천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고¹⁸⁾ 채색(倭色)이 짙었고 부산과 인천은 유랑민이 많아서 한국의 첫 신

17) 백낙준, 앞의 책, p. 217.

18) R.H.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I* (1884~1934), 1934, p. 19.

교 선교사로 일할 적지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알렌¹⁹⁾이 미국서 2년간 와싱턴주재 한국 공사관 서기로, 그리고 통역관으로 일한 후 (1887~89) 한국 선교사로 재임명받고 1889년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북장로교 선교부는 부산에 선교지부를 설치하는 일을 고려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적절한 선교부지를 구하지 못하여 자체되어 오던 중 드디어는 1891년 9월 주한 미국 영사관 관리의 특별한 배려로 '외국인 거주지' (Foreign Settlement)란 이름으로 선교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이곳은 북장로교 선교부의 부산지역의 선교거점이 된 것이다.

그래서 베어드는 이지방 최초의 북장로교 선교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원래 베어드는 중국선교사로 가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북장로교 선교본부는 베어드로 하여금 부산지방 선교사로 일해주도록 요청하였다.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였던 엘리우드(Dr. F. F. Ellingwood)는 베어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²⁰⁾

우리는 한국에 또 하나의 새로운 선교거점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선교지에서 있었던 것처럼 선교사의 지역적 집중화정책이 빚은 과오를 피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필요로하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여러지역이 복음화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남부지방에 또 하나님의 선교거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지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지역을 개척할 분이 아닌지요?

베어드는 이 제안을 받아드리고 1890년 12월 한국으로 향하는 긴 장도에

19) 의사이자 선교사이며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기도 했던 그는 중국 선교의사로서 임명되어 1883년 10월 11일 상해에 도착하여 지내던 중, 중국 산동성주재 미국선교사 레이드(Gibon Reid)가 본국선교부에 한국선교의 필요성을 호소할 때 한국으로 갈 것을 결심, 1884년 7월 20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로부터 허락을 얻고 9월 14일 상해를 출발하여 부산을 거쳐 그날 20일에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9월 22일이었다. 그는 도착 즉시 서울에 있는 미국공사관과 주한 외국공관의 관의(管醫)로 임명되었고 1884년 12월 갑신정변때 크게 다친 민영익의 생명을 구하고 고종의 시의가 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1886년 광혜원(Widespread Relief House) 설립을 허락 받았는데 이 병원은 한국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되었다. 1887년에는 선교본부와 관계를 끊고 와싱턴주재 한국공사관소속 서기관으로 일했다. 1889년에는 선교본부로 부터 한국선교사로 재임명를 받고 내한했으나 일년후인 1890년 8월에 다시 선교본부와 관계를 끊고 서울 주재 미국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일했다. 1897년 주한 미국사겸 총영사로 승진했고, 1901년에는 특명 전권대사로 임명되어 1905년까지 한국에서 재체하였다. 이렇게 볼 때 그는 한국에 온 북장로의 첫 선교사이기는 했으나 선교사로서의 사역은 길지 못했다.

20) H.A.Rhodes, *op. cit.*, p. 125.

올랐다. 베어드가 그의 아내와 함께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그 이듬해인 1871년 1월 29일이었다. 부산에서 이틀을 유한후 다시 서울로 행했고 1891년 2월 2일 인천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였다. 매년 개최되던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연례회의는 베어드의 입국시까지 연기되어 오던중 베어드의 서울 도착 다음 날인 2월 3일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베어드는 공식적으로 부산지부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베어드에게 부산에 선교부지를 매입하는 임무도 부여하였다. 그래서 1891년 3월 언더우드와 베어드는 부산에 와서 부지매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던중 앞서 언급한 바대로 1891년 9월 미국 영사관의 협조로 부산항에서 그리 멀지 않는 일본인 거주지밖에 있는 영선현의 땅(three parcels of land)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이 북장로교의 부산선교 거점이 되었고 베어드는 1891년 9월 부산에 오게 된 것이다.

베어드가 부산에 왔을 때는 계일이 부산을 떠난 후였기 때문에 서구인이라면 영국 세관원인 헌트(J. H. Hunt)와 하디가족뿐이었다. 하디의사는 거처 할 마땅한 집이 없어서 세관당국에 의해 영도(당시는 룩도, 곧 Deer Island라고 하였음)에 세워졌던 작은 콜레라병원에 기거하고 있었다.²¹⁾ 당시 부산, 경남지방에는 콜레라가 만연하였고 베어드의 일기를 보면 “거의 매일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화장하는 연기가 이곳 저곳에서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다.”²²⁾라고 할만큼 전염병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이제 막 부산에 도착한 베어드는 당분간 하디집에 유하였고 하디가 일본인 거류지역내에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옮겨갔을 때 베어드도 함께 옮겨갔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호주선교자들이 1981년 10월 부산에 왔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는 이들도 하디집으로 옮겨 왔으므로 4칸으로 된 하디집에는 하디가족, 베어드가족 그리고 호주의 3여선교자들이 함께 기숙한 일도 있다. 그러다가 1982년 3월 베어드는 앞서 구입한 부지에 지은 선교사관으로 옮겨갔다. 북장로교가 매입한 이곳 영선현(瀛仙峴)땅은²³⁾은 북장로교 선교의 중심지이자 후일 초량교회 태동의 모체가 된 곳이기도 하다. 베어드는 이제 비로서 선교관을 확보하였으므로 다소 안정된 가운데 부산선교의 기초를 닦아갈 수 있게 되었다.

21) R.H.Baird. *William M.Baird of Korea, a profile*, 1968, p. 19.

22) *Ibid.*

23) 지금의 대청동과 영주동 사이의 고갯길터(일명 영선고개)인 이곳을 영서현(英署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곳을 ‘영선’이 아니라 ‘용선(容膳)’이라고 함이 옳다고 보는 이도 있다. 그 이유로는 일본 사람들을 고관에 이주시킨 후 1년에 몇 차례씩 감령(監領)과 서로의 선물교환이 있었는데 이 선물을 주고 받은 것을 용인(容認)한다는 뜻에서 생겨진 이름이 용선현(容膳峴)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과의 물물교

그는 주로 개인전도와 지역순례를 통해 신자를 확보해 갔고 그 자신의 방을 개방하여 사랑방으로 활용하여 전도를 위한 접촉점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의 방은 ‘동네 사랑방’(Omnibus house)으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베어드는 광범위한 순회전도자였는데 한국 초기 신자중 한 사람이자 최초의 매서 전도인이었던 서상륜이 1892년 5월 12일 부산에 와서 베어드와 함께 순회전도 사업을 전개한 일은 유명한 일이다. 서상륜이 건강이 좋지 못해 부산에 온지 한달만인 6월 17일 서울로 돌아갔고 그 이듬해, 곧 1893년 4월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가 베어드를 돋기 위해 부산에 와서 두달간 함께 일했으나 그 역시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그해 6월 16일 서울로 돌아갔다.²⁴⁾ 그 후 베어드와 함께 일한 전도자는 황해도 해주 출신인 고윤하²⁵⁾로 그는 1893년 이후 베어드의 조력자로 봉사하였다. 베어드는 연중 7개월은 집을 떠나있을 만큼 개척선교에 최선을 다하였다. 1896년도의 보고에 의하면 279일간의 8차례에 걸친 순회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거리는 일천마일의 거리라고 하였다. 이 당시 그가 방문했던 지역은 김해, 진주, 동래, 울산, 밀양, 대구, 상주, 안동, 경주등 경상도지방과 전주, 목포, 공주등 전라도지방이었다. 이런 지역순례를 통해 후일 그는 대구지방 선교지부를 열게된 것이다.

베어드는 매우 능력있는 인물이자 개척자적인 의지를 겸비한 인물로써 부산지방 선교의 기초를 닦는 일에 크게 기여한 분이다.

1893년경에는 이미 영선현(영선고개, 영주동, 초량 일부 지역)과 부산진(범일동, 좌천동)은 부산지방 복음역사의 두 연원지로 부각되고 있었다. 즉 전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중심지가 되었고, 후자는 호주 장로교 선교부의 중요한 근원지가 된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곳이 당시 부산의 상거래의 요충지이자 대표적인 거류지였던 것이다.

배위량은 부산에 선교 거점을 마련한 다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경상북도 지방을 순회할 목적으로 선편으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대구까지 간 일이 있는데, 이 때가 1893년 4월 22일이었다. 이날이 바로 미국

환, 항연소(饗宴所)를 이곳에 두었으며, “용선고개” 밑에 동관문(東關門)이 있었다고 한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감영의 허가가 필요하고 통역관이 여기까지 와서 입회했기 때문에 “용선고개”라고 했다고 한다. (초량교회 80년사 편찬위원회, *초량교회 80년사* 1972, p. 81) 그런데 朝鮮 예수교 長老會 史記上(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1928) 22면에서 이곳을 ‘영서현’이라고 한 것은 이국인, 특히 미국인과 영국인의 집단 거주지로 보았기 때문에 적당히 취음(取音)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4) Baird, *op. cit.*, p. 13.

25) *Ibid.*, p. 15. 고윤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필자의 “은혜의 전령들”, 크리스챤리뷰, 1991.9월호, pp. 18~21 참고할 것.

인이 처음으로 들어온 날이며 대구지방에서 복음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베어드는 1891년 입국한 이래로 1895년까지 4년간 부산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옮겨갔다. 선교본부는 배위량 목사를 교육사업의 적임자로 보고 이 일을 맡기기 위해 서울로 이동시킨 것이다.²⁶⁾ 그가 부산에서 일한 4년간은 부산에서의 북장로교 선교를 개척하고 선교 스테이션을 설치했던 중요한 봉사였다. 배위량 선교사와의 관계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가 경남지방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소년들을 위한 학교(School for boys of primary grade)를 개교한 일이다.²⁷⁾ 그는 교육에 대한 특별한 이상을 가졌던 분이었다.

두번째로 부산에 부임한 북장로교 선교사는 휴 브라운(Hugh M. Brown) 의사로서 그는 1891년 2월에 부산에 왔다.

베어드의 요청으로 부산에 온 북장로교의 첫 의료선교사인 그는 자기집과 작은 시약소(dispensary)를 마련하고 의료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결핵의 감염으로 더 이상 선교지에 남아 있을 수 없었으므로 부산에 온지 2년후인 1893년 귀국하고 말았다. 그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6년이 채 끝나지 않아 1899년 뉴욕에서 병사 하므로써 그는 북장로교의 부산선교부에서의 최초의 희생자가 되었다. 1893년 11월에는 의사인 어빈(Dr. Charles H. Irvin, 漁2彬)이 브라운의 뒤를 이어 부산에 부임했다. 이 때로부터 1911년까지 선교사로 일하다가 그해 4월 1일자로 선교사직을 사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일로 그 후에도 수년간 부산에 체류하였다.

1895년 5월에는 아담스(James S. Adams, 安義窩) 부처가 부산에 파견되었다. 그는 배위량선교사의 처남으로서 생후 3개월된 장남(그가 바로 안두

26)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for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1897*, p. 140.

이 선교부의 연차회의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선교부는 한어사용(韓語使用)과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우리의 교육사업 분야를 확장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교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므로, 선교부는 이를 위하여 학교설립 계획을 추진해 왔다. 우리는 기독교인 자녀들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들의 전부가 다 교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시켜서는 않된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소명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기독교교육을 받을 권리가 박탈하여서는 않된다. 이러한 계획하에서 남자학교의 확장정도와 발전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W.M. 베어드 목사를 부산 스테이션에서 서울로 불러올린 것이다. 그리고 남장로교 형제들과 연합교육추진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The Korean Repository for November, 1986*, pp. 456~457).

27) Edith A. Kerr and G. Anderson,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89~1941*. Australian Presbyterian Board of Missions, 1970, p. 46.

화목사로 대구에서 제2대 선교사로 일했고 계명대학교의 설립자가 되었다)과 함께 내한하여 부산선교부에서 2년간 일했다.²⁸⁾ 이 기간동안 잠시 부산에 와서 어민을 도와 의료봉사했던 의사들로는 밀즈(Dr. Mills)와 비거(Dr. Biggar)등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북장로교의 부산선교는 이 지역에서 함께 일한 호주선교부와 함께 부산지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북장로교는 선교지역 조정에 따라 1914년 부산, 경남지역에서 철수하였는데, 이 때까지 23년간(1891~1914) 21명의 선교사가 부산에서 일했다.²⁹⁾ 이들의 봉사와 희생, 헌신의 결과가 오늘의 부산지역 복음화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4. 호주장로교의 부산지방 선교³⁰⁾

데이비스가 첫 호주 장로교 선교사로써 부산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1891년 4월 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회의 청년 연합회와 더불어 선교사 파송단체(Missionary sending organization)인 장로교 여선교회 연합회(P.W.M.U.)의 창립을 가능케 했고 이 두 단체는 각기 한국(부산)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결국 데이비스의 죽음은 호주 교회의 한국 선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다.

데이비스를 이어 두번째로 한국땅을 밟은 호주 선교사들은 청연 연합회의 파송을 받은 제임스 맥카이 목사(Rev. Jamesx.H. Mackay) 부부와 장로교 여선교회 연합회의 파송을 받은 3 사람의 미혼 여 선교사, 곧 멘지스양(Miss Belle Menzies), 페리양(Miss Jean Parry) 그리고 퍼셋양(Miss Fawcett) 등 5사람이 있다. 이들 다섯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일본을 거쳐 부산땅을 밟은 날은 1891년 10월 12일이었다. 이 때는 데이비스가 부산 땅을 밟은지 꼭 2년만이었다. 이들이 부산에 왔을 때는 한국의 가을이라고 했으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가고 있었고 조석으로 이는 바람은 매서운 겨울을 예고해 주고 있었다. 이 당시 부산에는 영국 세관의 관리였던 허트씨(Mr. Hunt)와 게일 선교사, 하디 의사 가족 그리고 북장로교 선교사인 베어드 목사 가정이 있었다. 부산에 도착한 호주 선교사들에게 가장 긴박한 일은 우선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처음 한국인들의 집에서 겨울을 보낼 궁리를

28) 아담스 선교사는 1896년 배위량 선교사와 함께 대구를 방문하여 선교지를 둘러본 후 1897년 봄에 대구 선교사로 부임하였다. 아담스 목사야말로 대구 지방선교의 실질적인 개척자요 대구지방 최초의 교회인 대구제일교회의 설립자가 되었다. 그는 이 때로부터 1923년까지 일했다. (이상근, 대구제일교회 90년사, 1983, p. 63)

29) Edith A. Kerr G. Anderson. *op. cit.*, p. 10.

구했으나 당시 조선은 이국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집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당분간 이미 부산에 와 있던 서구인의 집에서 유했으나 일본인 거주지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집을 얻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는 선교사들이 기숙할 만한 집도 없었거니와 그나마도 주택 사정이 좋지 못했다. 하디 선교사도 세판당국에 의해 영도에 세워졌던 작은 콜레라 병원에 기거하면서 한국인을 돋고 있었다.

아직 집을 얻지 못한 베어드 선교사도 하이디 선교사 집에 함께 기거하고 있었으므로 호주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주택문제 해결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호주 선교사들은 힘겹게 일본인 거주지 내의 빈창고를 얻을 수 있었고 이곳에서 우선 1891년의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흙벽돌로 지은 운막집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면 집안까지 스며드는 허술한 곳이었으므로 겨울을 지내기에는 적절치 못했으나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들이 부산에 도착한지 3개월 후인 1892년 1월 27일, 이날도 부산의 겨울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맥카이 목사 부인은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미 그녀는 지난 6주간 병상에 있었고 이국의 추운 겨울방에서 외로운 투쟁을 계속했으나 하나님은 그녀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이다. 맥카이 목사 부인의 죽음은 한국에서의 그리스도를 위한 호주 장로교의 두번째 희생이었다. 호주 선교사들은 그녀의 시신을 부산 앞바다가 굽어보이는 데이비스 목사 옆에 안장하였다. 맥카이 목사도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고 세 사람의 미혼 여성도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자 하디 선교사는 남은 4사람의 호주 선교사들을 자기 집으로 오게하여 함께 그해 겨울을 지내도록 하였다. 당시 그의 집은 4칸의 작은 방이 있었는데 하디 부부와 두 아이, 베어드 부부, 맥카이 선교사, 그리고 3 여선교사 등 10여명이 함께 기숙하였다. 그러나 맥카이 목사의 건강이 호전되지 않자 의사였던 하디는 맥카이 목사에게 본국으로 귀국하여 건강을 회복한 뒤 다시 임지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였다. 그래서 맥카이 목사는 아직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세 여선교사를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나 1892년 7월 4일 호주로 돌아갔다.

맥카이 목사는 얼마간의 요양을 한 후 1892년 8월 3일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 때 그는 장로교 여선교회 연합회의 4번째 선교사인 무어양 (Miss Bessie S. Moore)과 함께 부산으로 돌아왔다. 무어양은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기다리던 중 맥카이 목사와 동행하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무어양은 1919년 한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약 17년 동안 부산(1892~1913), 통영(1918년 이후) 등지에서 복무하였다.

부산으로 돌아온 맥카이 목사는 그해 10월 11일 일본 나가사끼에 있는 성공회 교회당에서 퍼셋 (Miss Fawcett) 양과 결혼하였다. 맥카이 목사는 이 사실을 본국 선교부 책임자였던 케인스씨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였고 (1892

년 10월 14일자 편지) 퍼셋양은 여선교회 연합회에 선교사 사업 의사를 전달하였다. 당시 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사는 결혼할 수 없으며 결혼할 경우 선교사직을 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은 크게 3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첫째로는 해안지역 (port)인데 당시 이곳에는 3,500여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둘째로는 초량지역이었는데 이곳에도 약 3,500여 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세째로는 부산진이었는데 이곳의 거주인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나 적어도 3,500~4,000명 정도가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진술한 바지만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에 도착한 이후 처음에는 일 본인 거주 지역으로 옮겨갔다.

본국에서 요양한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맥카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교사의 주택을 구하는 일이었다. 그가 여러가지로 노력하던 중 1893년에는 초량지역에 약 600평의 땅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얼마 후 여선교사들도 맥카이 목사의 도움으로 부산진의 한옥과 땅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맥카이 목사 부부는 초량으로, 여선교사들은 부산진으로 이주 하였던 바, 이 지역 곧 초량과 부산진이 호주 선교부의 거점 (Mission Station)이 되었고, 후일 선교지 조정안에 의해 초량 지역을 북장로교 선교부에 넘겨주므로 부산진 지역 곧 지금의 동구 좌천동 686번지 일대는 호주 선교부의 센터가 되었고 그로부터 100여년 지난 지금까지 부산진의 좌천동 일대는 호주 선교부 관계기관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맥카이 목사의 건강은 1893년에 들어와서 다시 악화되었다. 부산에 주재 하던 의료 선교사인 하디의 권고를 받고 맥카이는 한국을 떠나기로 하고 1893년 8월 28일 본국에 선교사 사업 의사를 통보하였고 곧 한국을 떠났다. 그가 부산에 온지 꼭 2년이 지난 때였다. 맥카이 목사가 한국을 떠난지 2년 후인 1894년에는 폐리양도 장로교 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사직을 사임하였고 고아와 맹인들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역하기로 하고 서울로 갔다.

빅토리아주 장로교 여선교회 연합회 (P.W.M.U.)는 폐리양이 은퇴하자 그의 후임으로 브라운양 (Miss A. Brown)을 임명하였고 그녀는 1895년 12월 부산에 도착하였다. 브라운양은 일반적으로 롤란드 판 (Rolland House) 혹은 여교역자 훈련원 (Deaconess Training College)라고 불렸던 여성 교회지도자 혹은 선교자 훈련원을 수료한 후 한국에 파송된 첫 선교사였다.

브라운양은 앞서 파송된 멘지스, 무어양과 함께 부산에서 사역하였고 1907년 왕길지 (Rev. G. Engel) 선교사와 결혼하였다. 후일 남편을 따라 평양으로 이거하였고, 1937년 은퇴하였다.

어떻든 맥카이 목사 부부와 폐리양의 사업으로 1891년 두번째로 한국에 왔던 다섯 명의 선교사 가운데 오직 멘지스양만이 부산에 남았다. 멘지스양

은 1892년 파송된 무어양, 1895년에 파송된 브라운양과 맥카이 목사에 이어 세번째로 청년연합회의 파송을 받아 1894년 5월 20일 부산에 파송된 아담슨(Rev. Andrew Adamson) 목사와 더불어 1890년 대의 호주 선교부를 이끌어 갔다.

아담슨 선교사는 영국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England) 출신으로 5년간 중국에서 대영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소속 선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런던에 돌아와 휴양하던 중 호주 장로교회 선교부의 요청으로 부산으로 오게 된 것이다. 부산 초량에 거하게 된 아담슨 목사는 이때로부터 1914년 한국에서 은퇴할 때까지 20년동안 부산(1894~1909)과 마산(1910~1914)에서 봉사하였다. 아담슨 목사는 후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부산 초량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을 순회하며 순회 전도와 호주 선교부의 정착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산에서의 호주선교부의 초기 사역은 크게 3가지 영역 곧 전도, 교육, 자선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부산에 온 선교사들이 일본인 거주지역에 임시로 살았으나 한국인 거주지로 거처를 옮기고 특히 부산진에 선교관을 건립한 이후 선교사들의 활동은 본격화되었다.

호주선교사들이 부산진의 한국인 거주지에서 살게 되자 주변의 한국인들은 이들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고 점차 접촉의 기회가 빈번해졌다. 이 당시 여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이 선교사 집으로 찾아왔고 저녁에는 부인들의 방문이 빈번하였고 때로는 밤 늦은 시간까지 돌아갈 줄 모르고 오래 앉아 있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국인과 선교사들 사이에는 점차 신뢰를 갖게 되었다. 서구인들은 결코 두려움이나 경원시 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한국인 거주지에서 약2년간의 생활은 한국인과의 신뢰와 접촉의 폭을 넓혀주었던 바 이점은 선교사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간 것이다. 그래서 1893년부터는 작은 선교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페리양(Miss Jean Perry)의 편지에 의하면(Record, 1893.2) 적어도 1891년 말까지는 부산에는 단 한 사람의 여성 신자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호주의 여선교사들의 한국인 특히 아동들과 부녀자들과의 접촉은 점차 학교 교육과 부인 성경반 그리고 고아원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가 되었다.

이 당시 선교사들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들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였고 여러 형태의 모임이 시작되었다. 또 이 모임에 참여하는 한국인 아동과 부녀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 갔다고 기록하였다. 이들 선교사들의 첫번째 사역은 부산의 아동들을 위한 고아원의 시작이었다. 이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부양받을 수 없

는 아동, 부모중 어느 한쪽이나 전부가 사망하거나 이혼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 혹은 버려진 아동을 위한 보양과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때가 1893년이었다.

이 고아원이 후일 미오라 고아원(Myoora orphanage)으로 불리게 된 호주 장로교 선교부의 첫 자선기관이자 교육기관이 된것이다. 이 고아원 이름을 「미오라」라고 한 것은 당시 투락에 있던 하퍼부인(Mrs. Harper)의 큰 저택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인데 하퍼부인은 장로교 여선교 회장으로 34년간 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를 위해 크게 기여하였고 그의 재정 지원이 고아원 경영에 큰 보탬을 주었으므로 그녀의 봉사를 기리기 위해 미오라 고아원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미오라」라는 말은 원주민 언어로 「야영지」 혹은 「안식처」란 뜻이다.

이 고아원의 아동 수는 점차 늘어갔고 2년 후인 1895년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아동들이 늘어나자 정식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어 1895년 10월 15일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관에서 수업연한 3개년의 소학교 과정을 설치하고 사립 부산진 일신 여학교(私立 釜山眞 日新 女學校)를 개교하게 되었다.

이 학교가 호주 장로교 선교부의 첫 교육기관이자 부산 경남지방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이 되었고 적어도 해방이전까지 경남지방 최고 최대의 여학교가 되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여성교육은 사실상 전무하였고 “여성에게는 무식이 덕이니라”(Women's virtue is her ignorance)는 관념을 가졌던 때였음을 생각해 볼 때 호주 장로교의 여성교육은 이 지방여성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교사들의 고아원은 단순히 자선기관만이 아니라 동시에 교육기관이었다. 아동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르쳤던 바 이것이 후일 여학교로 발전하였고 고아원에 수용된 아동들이 동시에 여학교의 첫 등록 학생이기도 했다.

1893년 시작된 고아원이 1895년 10월 일신(Daily New)여학교로 발족하게 된 배경은 1895년 2월 당시 고종(高宗)의 교육立國조서(教育立國詔書)와 같은해 8월 12일에 발표된 소학교 규칙 대장(小學校規則大綱, 學部分 第3號 開國 504년 8월 12일)에 힘입은 바 크다. 이 당시 이 학교는 주로 성경과 기독교신앙을 가르쳤고 수신(修身) 한글과 한문, 산수, 체조등을 가르쳤다. 첫 교장직은 멘지스 양(Miss Menzies 한국명 閔之使, 민지사였다)이 맡았다.

호주의 여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어린이들과 부녀자등 두 계층의 한국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였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는 조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고, “여성을 정복하는 자는 나라를 정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아동을 위한 자선(고아원), 교육사업(일신 어학교)과 더불어 부녀자를 위한 성경 모임반을 조직하였다. 당시 한국 부인들은 매우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맹자가 많았으므로 이들에게 우선 한글을 가르쳤고 성경과 찬송 등 신앙지도와 위생 식품등 생활환경 개선을 의도하였다. 여성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은 1894년 12월 선교사관이 세워짐으로 시작되었다. 여성반은 선교사의 집에서 인접한 한국 부인들로 부터 시작됐으나 점차 참석자수가 늘어났고 여러지역, 심지어는 초읍, 동래지역 등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다.

1895년의 참석자수는 36명 정도였으나 2년 후인 1897년에는 65명으로 늘어났다.³⁰⁾ 주일날에는 아동과 성인들을 위한 주일학교와 성경반을 운영하였던 바 이 일 역시 1893년 이래로 계속되었고 1897년경에는 약50여명의 아동들이 회집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호주 선교사들은 일신여학교를 통한 여성교육 뿐만 아니라 남자를 위한 교육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즉 일신여학교가 시작된지 2년후인 1897년 여선교사들은 부산지방 최초의 신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산 경남지방 최초의 수세자(受洗者)였던 심상현씨의 아버지인 심씨를 교사로 채용하여 남자학교를 시작하였다. 이 때도 멘지즈양이 책임자였다. 그러나 그녀가 안식년으로 한국을 떠나게 됐을때 무어양(Miss Moore)이 이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계속되지 못했고 적절한 교육 책임자가 파송될 때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이 학교의 문을 닫았다.

이상과 같은 사역, 곧 자선사업, 교육사업, 성경교육 등 신앙교육, 그리고 후론할 전도사역 등이 초기 선교사들의 주된 활동이었다.

5. 부산지방에서의 첫결실, 교회의 설립

지금까지 우리는 부산 지방에서의 복음 운동의 기원과 연원을 살펴 보았다. 1891년 이래로 이 지방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한 미국 북장로교와 호주 장로교의 초기 선교 사업의 대장을 고찰하였다. 이제 이 지방에서의 최초의 결실, 곧 첫 세례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한다. 불행하게도 이 점에 대해서

30) 본항은 필자의 풀고, *Opening Auseralian Mission in Korea (unpublished)*와 '호주장로교회의 한국선교산고'라는 제하에 호주 시드니에서 발간되는 크리스천리뷰에 연재하는 일련의 호주장로교회 한국선교사에 (1990. 1월호~) 기초하였으며, 본항에서는 주(註)를 생략하였음.

31) *Annual Report of the P.W.M.U. for 1898*, p. 6, *Proceedings of the General Assembly of P.C.V. for 1898*, p. xxiii 참고.

는 정확하게 보고된 적이 없으나³²⁾ 필자는 여러 가지의 자료와 문헌을 종합하여 고찰한 바³³⁾ 부산 지방의 첫 수세자와 수세일 등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부산 지방에서 첫 세례식이 거행된 것은 1894년 4월 22일 이었다.³⁴⁾ 이 때의 첫 수세자는 한 남자와 두 사람의 나이든 부인 등 3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곧 심상현, 이도염, 그리고 ○귀주(성 미상)이었다.³⁵⁾

한국에서 첫 세례식은 1886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로부터 8년 뒤인 1894년에 부산에서 첫 수세자를 얻은 셈이다. 앞서 언급한 바이지

32) 백낙준 박사는 그의 한국 개신교사, 1932~1910(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217쪽에서 부산지방에서의 전도의 상황을 언급하는 중에 "멘지스양의 어학선생이었던 심서방(沈書房)이 처음 얻은 신자인데 1893년 W.M. 베어드(Baird)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비록 백낙준 박사는 한국교회 초기사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연구하였고 그의 저서는 한국 교회사 연구에 크게 기여한 점은 사실이지만 호주 선교부와 관련한 부산지방 초기사에 대한 위의 기록은 정확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가 한국교회사서류에서 오직 유일하게 부산지방 첫 수세자와 첫 세례식에 대해 언급한 일만은 주목할 만 하다.

33) 비록 한국교회사에 대한 수다한 글에서는 부산지방의 첫 수세자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나 1890년대 당시 부산 경남지방에서 선교하였던 미국 북장로교회와 호주장로교회의 자료와 당대의 각종 선교기록, 호주 장로교회의 몇 가지 잡지 등 관계문서들, 이를테면 노헤리(Harry A. Rhodes)의 미국 북장로교회의 한국 선교사(*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I, 1884~1934*)나 미국 북장로교회의 부산지방 첫 선교사였던 배위랑(William M. Baird)의 일기 등 그의 기록들, 그리고 거이득(Edith Kerr)과 앤다슨(George Anderson) 두 선교사가 공동 집필한 호주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 보고, 1889~1941, 그리고 본인이 호주의 각종 도서관과 고문서 보관소(Archives)에서 입수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보다 분명하고도 정확한 부산지방의 첫 결실에 대해 추적해 볼 수 있다.

34) 부산지방에서의 첫 세례식에 관해서 분명히 말한 자료는 오직 두 가지 뿐이다. 즉 Harry A. Rhodes의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I. 1884~1934*와 Richard Baird가 엮은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1968)가 그것이다. 전자에서는 첫 세례식 일자를 1894년 4월 23일이라고 기록하였으나(p. 129), 후자에서는 1894년 4월 22일로 기록하였다. (pp. 48~49) 특히 두번째 자료는 부산지방의 첫 북장로교 선교사이자 첫 세례식을 집례하였던 William Baird의 일기를 중심으로 엮었는데, 이 일기에서는 두 번이나(1894년 5월 3일자와 7월 16일자) 첫 수세일을 4월 22일로 기록하였다. Rhodes의 자료는 2차 자료이며 Baird의 자료는 세례식을 집례했던 Baird 선교사 자신의 일기라는 점에서 1차자료라고 할 수 있어 첫 세례식은 4월 22일이 정확하다. 또 이날은 주일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다. Baird가 1894년 7월 15일 자신의 고용인에게 세례를 배포었는데, 이때도 주일이었다. 이렇게 볼 때 수세일은 4월 23일로 기록한 H.R.Rhodes의 저술과 이 기록에 기초한 부산진교회의 문서는 정확하지 않다.

35) 우리는 이 날 세례를 받은 세사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심상현씨

만 백 낙준 박사는 이 때를 1893년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오기다. 이 때의 수세자는 호주 선교부의 첫 결실이자, 부산 지방 첫 열매였고 부산은 경상도 지방의 첫 선교 지역이었으므로 부산과 경상도 지방에서의 첫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날 세례식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1891년 아래 부산서 사역하였던 베어드 선교사가 집례하였다. 이 당시 호주 선교부에는 멘지스 양, 페리 양, 무어 양 등 오직 3 사람의 여선교사만 있었다. 1891년 청년 연합회의 두 번째 선교사로 파송받아 왔던 맥카이 목사는 건강때문에 부산을 떠나 1893년 10월 13일 멜보른으로 돌아갔고 맥카이 목사의 뒤를 이어 청년 연합회의 3번째 선교사로 임명된 아담슨(A. Adamson)목사는 1894년 5월 말 임지인 부산으로 왔으므로 1894년 4월 당시 호주 선교부에는 목사 선교사가 없었다. 바로 이런 상황때문에 비록 호주 선교부가 얻은 첫 결실이었으나 부산에 주재하던 미 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 목사에게 집례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때 세례받은 3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심서방(Sim Sye Bang)으로 알려진 심상현(沈相炫, Sim Sang Hyun)은 세례받을 때까지 2년간 멘지스 양의 어학 선생이었다. 이 때 세례를 받았던 두 여자중 한 사람은 이도염(李道瀛, Yi To Nyum)이라는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페리 양(Miss Perry)의 조수(assistant)로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던 분이다. 호주 선교부는 1893년 고아원을

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심상현이 세례를 받았던 4월을 전후하여 무어(Moore)양 등 여선교사들은 빅토리아의 발라랫(Ballarat)에 사는 기도 후원자들에게 심상현씨를 위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모금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적이 있는데 (*Record of Federated Church of Australia and Tasmania*, Vol. VI, No. 8, Aug. 1894, p. 5 참고) 이 편지를 받은 선교사들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에 “환우(患友)기도회”(Invalids Prayer Band)가 정성껏 모금하여 부산에 송금하였고, 선교부는 이 돈으로 부산진의 선교사관 맞은편의 한옥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곳에 거주하게 된 심상현씨는 환우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위량 선교사의 일기에서 다소 불분명했던 첫 수세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심상현은 환우들의 사랑과 호의를 감사한 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도록 하셨지요. 귀주(Koui Chou)는 불교를 신봉하던 나이 드신 부인의 새 이름인데 ‘귀한 진주’(Goodly perar)란 뜻이지요. 또 다른 부인(Archie)의 새 이름은 도염(To Nyem)인데 ‘순수한 도’(doctrine pure)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 이름은 상현(Sang Hyen)인데 ‘서로 밝음’(both bright)이란 뜻이지요.”라고 이름의 뜻을 설명하였다.

외국인들의 한국의 지명, 인명 등 고유명사에 대한 표기가 부정확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심서방의 편지는 첫 수세자의 이름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시작하였는데 페리 양이 이 일을 주관하였고 이 도염은 바로 이 고아원의 보모로서 일했다. 분명치는 않으나 이 여자는 한 때 광대 혹은 기생(dancing girl)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씨(Ar-Chie)로 불리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한 여자는 귀주(貴珠, Kwi Choo 혹은 Qui Cho³⁶⁾)라는 분인데 성은 분명치가 않다.³⁷⁾ 이 여자는 불교를 신봉하면 여자였는데 호주의 여선교사들이 1891년 부산에 온 이후 한국인 거주 지역에서 살 때 이들에게 찾아왔던 첫 여자로 알려져 있다. (참고 *Annual Report of the P.W.M.U. for 1894*)

이상에서 말한 3사람이 첫 수세사였다는 점에서 교회의 첫 회원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첫 입문자였다고는 할 수 없다. 부산에서 일하고 있던 미국 북장로교와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 간간히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세례를 요청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입문하는 이들도 있었다. 즉, 정치적인 동기로, 혹은 경제적인 동기로 선교사를 찾아왔고 선교부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이들이 있었다.

즉, 기독교를 힘입어 정치적인 변혁을 꿈꾸거나 선교사의 그늘 밑에 어떤 보호를 꾀하는 이들이 있었고 당시 한국인이 볼 때 선교사는 유혹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통해 물질적 유익을 얻으려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순수한 동기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교적 풍습과 미신을 버린 분명한 변화를 가져온 사람에게 세례를 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1894년 1월과 3월 사이에 쓰여진 베어드 선교사의 글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베어드의 일기를 보면 이미 여러 사람이 세례를 청원하였고 그중 어떤 이는 천로직해(天路直解)와 같은 기독교 서적을 읽은 이도 있었다고 한다.³⁸⁾

36) *Annual Report, P.W.M.U., 1894*, p. 8과 *Proceeding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C.V. 1894*, p. lxxviii에는 'Qui Cho'로 표기되어 있다.

37) 이들에게 세례를 배풀었던 배위량 선교사의 1894년 5월 3일자의 일기를 보면 첫 수세사 세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심상현과 두 나이드신 부인 이도염과 귀주”(The persons were Sim Syang Hyun and two old ladies, Yi To Nyum and Kwi Chyoo)라고 쓰고 있다. 즉 “이도염과 귀주”라고 하여 두번째 여자의 성을 명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장 구조상 “그리고”(and)라는 대등접속사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할찌라도 귀주라는 분의 성 또한 이씨였을 가능성 이 짚다.

38) *Baird of Korea*, p. 47.

이도염과 귀주 두 부인이 세례 반기를 원했을 때 호주 선교사들은 베어드에게 성경문답을 요청하였는데 이때는 1894년 2월 하순 경이었다. 베어드는 이 두 사람과 두 차례 면접을 한 후 같은 2월 28일자 일기에서 “저들이 신앙을 고백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재치있게 대답하였지만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리오?”라고 했는데 이 점을 보아도 성급한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온전한 결실을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선교부에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한 조처였다.

호주 선교부가 얻은 첫 결실인 두 부인이 세례반기를 원했을 때는 1894년 2월 이었고 베어드 선교사에게 두 차례 문답을 받았음은 이미 언급하였지만 심서방이 세례를 요청했을 때는 그 해 4월 초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서방은 이미 신앙을 갖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공적 고백이었으므로 다소 여유를 가지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 온 것으로 보인다. 그도 베어드 선교사에게 두 차례 문답을 받았는데 (4월 6일과 16일) 베어드는 첫 번 문답을 통해 심서방이 참된 신자인 것을 확인하였고, 두번째 문답에서는 이 점을 의심없이 확신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드디어는 1894년 4월 22일 부산진에 있던 호주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한옥에서 부산에서의 첫 세례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이 역사적인 예식에는 13명의 남자와 22명의 여자, 그리고 22명의 어린 아이들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선교사관이 협소하였으므로 모든 가구들은 밖으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³⁹⁾

이날 예식은 찬송, 기도,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되었고 베어드 선교사는 심상현씨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두 부인에게 차례로 세례를 주었다.⁴⁰⁾ 이 날 세례를 받은 3 사람은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였고 선교부를 위해 크게 봉사하였다. 특히 심상현씨는 여러가지 재질을 갖춘 능력있는 분이었으므로 어학 선생으로 일신 학교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선교부를 위해 약진 봉사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세례를 빙던 해인 1894년 10월 중순 경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가 세례를 받은지 꼭 6개월만에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심서방은 비록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영향으로 그의 부모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의 동생 심취명 또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호주 선교부가 운영하던 남자 학교 교사였던 심서방의 삼촌뻘되는 김씨도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이들은 심서방이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 뒤인 1895년 11월 3일 함께 세례를 받았다.⁴¹⁾ 아버지 심씨는 남자 학교의 한

39) *Record of Federated Church of Australia and Tasmania*, Vol. VI, No. 7, (July, 1894), p. 14.

40) *Baird of Korea*, p. 49.

41) *Chronicles*, July 1, 1907, p. 5.

문교사로 일하였고 동생 심취명은 형의 뒤를 이어 처음에는 한국어 선생으로 봉사하였으나 일신 여학교 교사로, 그리고 선교부가 주관하는 집회에서 학습반을 가르치며 신앙교육을 담당하였다. 그후 1903년에는 장로로 택함을 받고 이듬해인 1904년에는 장로로 장립하였다. 첫 수세자였던 심상현씨의 동생 심취명은 부산에서는 물론, 경상도 지방, 아니 한강 이남에서 최초의 장로가 된 것이다. 후일 그는 왕길지 (G. Engel) 선교사의 권함을 받고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1909년 목사안수를 받으므로 이 지방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부산에서 첫 세례식이 있은 후 약 3개월 후인 1894년 7월 15일에는 북장로교의 베어드목사는 자기의 고용인이었던 두 사람에 세례를 베풀었다.⁴²⁾ 즉 베어드는 자기 집에서 모였던 이날 예배에서 로마서 12장 1~2절을 중심으로 설교한 다음 서초시 (Saw Cho Si, 이름이 '서초'일 가능성도 있다)와 자기가 고용하고 있던 한국인 가정부 곽수은 (Kwak Soo Eun)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⁴³⁾ 베어드목사가 세례를 준 후 호주선교부의 아담슨 선교사는 히브리서 12장 1~2절을 중심으로 영어로 설교하였다.

이 때는 아담슨이 임지에 온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때였다. 이 설교를 마치고 7명의 한국인과 9명의 외국인은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었다.⁴⁴⁾ 어찌면 이날의 성찬식이 한국인 신자와 함께하는 최초의 성찬식이었는지도 모른다.

1894년 부산에서 첫 세례식이 거행된 후 수세신청자가 계속 있어 왔으나 기록상으로 세번째 세례식은 1895년 11월 3일 (주일)에 있었다. 이 날 호주 선교사인 아담슨은 2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⁴⁵⁾ 이들은 부산진의 여선교사들의 결실로써 이들 중에는 부산 지방 첫 수세자였던 심상현의 부모, 삼촌, 그리고 심상현의 아내가 포함되었고 심상현의 유복자인 심은사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42) 이때의 세례식이 부산에서의 두번째 세례식이었다. (Baird, *op. cit.*, p. 13 참고)

43) 이상의 사실은 베어드 선교사의 일기 1894년 7월 16일자에 기초함.

44) 베어드가 그의 일기 속에서 이날 참석한 사람의 숫자와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한 것을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 틀림없다. 이 성찬식에 참여한 7명의 한국인 중에서 4 사람은 남자였는데 타 지방에서 이거해 온 두 조사 안씨와 고씨 그리고 최근 세례를 받은 심상현과 서초시였고 3 사람의 여자는 지난 4월 22일에 세례를 받은 두 사람 (이도염, 귀주)과 이 날 세례를 받은 곽수은 이었다. 그리고 그외의 외국인으로는 배위량 선교사 부부, 어울빈 (Irvin) 의사 부부, 아담슨 선교사 부부, 그리고 호주의 세 여선교사 곧 멘지스, 무어 그리고 페리 양이었다. 이들 외에도 이날 성례식에는 50~60여 명이 참석하여 교회의 예식을 엄숙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45) 이 날 세례받는 사람의 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즉 여선교회연합회가 빅토리아주 장로교 총회에 보고한 문서 (총회록 Nov. 1896)에서는 남자 10명, 여자 11

이 지방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된 두 교회는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초량교회와 부산진 좌천동에 위치한 부산진교회이다.

1892년 11월 7일 설립된 초량교회는 지금까지 이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왔다. 1928년에 간행된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史記) 상권에서는 초량교회의 설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즉 “부산 초량교회가 성립하다. 선시(先是)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배위량(裴緯良)부부가 영서현(英署峴)에 내왕하고 그후에 하대의사부부가 적래(赤來)하야 동시 전도함으로 신자가 점기(漸起)하고 시년(是年)에 선교사 손안로(孫安路)가 초량(현금 예배당 기지)에 왕래하여 교회를 설립하니라 (그후에 손안로가 마산에 이주할 시에 영서현교회와 명향하였고 예배당을 영주동에 이전하였으리라) 시시(是時)에 선교자 배위량은 부산으로부터 대구에 이주하여 해처(該處)를 동도(同道)의 중심지를 삼아 열심으로 전도함에 신자가 점진(漸進)하야 교회 기초가 성립되여 낸대 서두찬(徐斗燦)이 처음 세례를 맞았나니라”⁴⁶⁾

배위량선교사가 영서현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디의사가 이 일을 도우므로 신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공집회가 시작되었는데 1892년 11월 15일 입국한 손안로(W. S. Swallon, 1932년 3월 24일 은퇴)선교사가 부산에 와서 영선고개 한문서당 기와집을 매입하여 최초의 교회당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초량교회는 초량교회 80년사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초량교회는 영남선교의 첫 열매”이며 “이는 1885년 한국 최초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가 설립된지 8년후이고 1890년에 새문안교회가 창립된지 3년후이다. 대구제일교회와 서울 연동교회가 설립되기 3년전이요, 평양 장대재교회와는 동시에 창립되었다. 그러므로 초량교회는 소래(松川)교회와 새문안교회의 아우요 연동교회와 대구 제일교회의 형님이요 평양 장대재 교회와 동갑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초량교회는 “미국과 호주 선교의 첫 열매요 한강 이남에 맨 먼저 선 경남의 어머니교회로” 생각해 왔다.

명, 도합 21명이 세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빅토리아주 총회 해외선교부에 보낸 아담슨 선교사의 보고에는(FMC 회의록, 18 Mar. 1896)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한 남자는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되어 있다. 또 여선교회 연합회의 연례보고서(1896)에서도 22명으로 되어 있고 청년연합회의 연례보고서(1895~6)에서도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유아세례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집례자였던 아담슨의 보고와 청년연합회의 기록이 더욱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되며 이날 수세자 22명 중 남자가 10명, 여자가 11명, 유아세례자가 1명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10명의 남자 중 한 사람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고 보는 종합적 이해라고 생각된다.

46) 대한예수교 장로회사기 上.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1928, p. 22.

그러나 근년에 와서 부산진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기등에서 기록된 1901년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 그 보다 10년 앞선 1891년 설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사기에서는 “부산진교회가 성립하다. 선시(先是)에 여선교원 영국인 맨지쓰양이 당시(當地)에 내왕하여 각양의 시험과 박해를 모(冒)하고 전도한 결과 신자가 계기(繼起)하았고 선교사 왕길지(王吉志)가 내왕하여 교회를 설립하니라”⁴⁷⁾ 하여 그 설립연대를 1910으로 기술하였지만 부산진 교회는 근년에 발견된 표창장등에 근거하여 교회 설립연도는 189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진교회는 1931년 1월 15일 김유실이란 분에게 ‘본교설립 사십주년을 기념하여 겸하여 귀하의 공로를 표창함’이라는 내용의 표창장을 수여하였는데, 이 문건의 생산일로부터 40년을 계산하면 1891년 1월 15일이 되며 이 때가 곧 부산진교회 설립일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점이 사실이라면 부산진 교회는 부산지방을 물론 영남지방최초의 교회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가지 점에서 논의와 연구 그리고 검증이 필요하다. 교회설립을 어느 때로부터 보느냐하는 문제와 여러문서들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곧 별도로 밝힐 예정이므로 본고에서는 부산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들로 부산의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라는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6. 글을 맺으며-선교지역분활과 치리회의 조직

이상에서 우리는 부산지방에서의 기독교의 전래와 접촉, 선교운동 그리고 이 지방에서의 초기 교회설립에 대해 개관하여 보았다. 부산지방에서도 성경반포와 문서를 통한 선교의 노력, 곧 매서전도의 단계, 공식적인 선교활동이전의 비공식 선교의 단계, 선교사의 상주와 선교부(Mission)설치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선교의 단계를 거쳐 기독교복음이 접촉, 전래, 수용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글을 마감하면서 이 지방에서의 선교지역에 관한 조정과 치리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해 언급하므로써 1900년대 이후의 이 지방 기독교계를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부산지방은 그 선교초기부터 미국 북장로교회가 호주 장로교 선교부가 공동으로 선교하여 왔다.

1893년 1월에 회집되었던 장로교 선교 공의회(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에서도 부산지방은 미

47) 앞의 책, p. 88.

북장로교와 호주장로교가 연합으로 선교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다가 1900년대를 경과하면서부터 양 선교부간에 빈번한 선교지역조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1901년에는 지역분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03년 10월 20일에는 양선교부가 합의하여 낙동강을 경계선으로 남서쪽, 곧 울산, 기장, 언양, 양산, 거제, 진해, 고성지역은 호주 장로교회가 동북쪽, 곧 김해, 용천, 밀양, 영산, 창영, 칠원, 창원등지는 북장로교선교부가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부산, 동래, 마산지역은 양선교부 공동구역으로 하였다. 한편 북장로교선교부는 1902년부터 경남지역에서 철수를 고려하였는데 1908년에는 다시 호주선교부의 선교사가 중원되면 경남지방에서 철수할 용의가 있다고 호주선교부와 협의를 제안하였다. 1909년 양선교부는 선교지역 분활에 대한 재 조정을 합의하였고 호주선교부가 경남지방의 동부지역과 마산지역을 담당하는 대신 초량지역은 북장로교에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부산진, 고관, 동래등지는 호주장로교의 선교지역으로 합의되었다. 그래서 인구를 중심으로 말할 때 호주선교부는 부산, 경남지방의 150만 인구중 100만명의 영혼을 담당하게 되었다.

1913년에 회집된 북장로교선교부의 연례회의에서는 부산, 경남지방에서 북장로교는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하므로써 1914년 이후는 부산, 경남지역은 호주선교부의 선교지역이 되었다. 그래서 호주 선교부는 기존의 부산, 동래, 마산지역 외에도 진주, 거창, 통영등지에 선교지부(Mission Stations)를 설치하고 경남지역선교를 확대해 갔다. 그러므로 1914년 이후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의 기독교운동은 호주선교부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논구 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지방에서의 치리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1900년대까지는 선교사 중심으로 선교공의회로 있었으나 1907년 9월 17일 한국교회 최초로 장로교 '독로회'가 조직되었다. 이때 노회관할하에는 평북, 평남, 황해, 경기, 충청, 전라, 함경, 그리고 경상대리회 등 7개의 대리회(代理會, Sub-presbytery)를 두어 노회의 위임사항을 처리케 하였는데 부산지방은 물론 경상남북도의 교회들은 경상대리회 관할하에 있었다.⁴⁸⁾ 그래서 이때(1907~1912)를 가르켜 '경상대리회시대'라고 한다.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해 감에 따라 1911년 9월 17일 대구 남문교회에서 모인 제5회 독로회는 다음해, 곧 1912년에 7대리회를 노회로 승격하여 장로회총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7개 대리회가 노회로 개편되었는데, 경상대리회는 1912년 1월 6일 부산진교회에서 목사 18명, 장로 18명이 모인 가운데 '경상노회'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이해 9월 평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부산·경상도의 교회들은 다 경상노회 관할하에 있었기에 이 때(1912~1916)를 보통 '경상노회 시대'라고 한다. 그후 1916년 평양 시문밖 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제5회총회에서 경상노회가 헌의한 노회분립안이 가결되어 1916년 9월 20일 부산 일신여학교 강당에서 기존의 경상노회를 분리하여 '경남노회'를 조직하였다. (노회장: 왕길자목사 서기: 정덕상목사) 이 때로부터 부산과 경남의 교회들은 경남노회에 소속되어 이 노회의 치리하에 있게 된 것이다. 경남노회가 부산노회등으로 분립된 것은 해방이후의 일이며, 해방이후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하므로 교단에 따라 부산 경남지방을 관할하는 여러 노회로 분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8) 1907년 당시 경상대리회 관할 교회수는 186개로 보고되고 있다.